

# 전체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김승욱 (월간<월드뷰> 발행인)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선거, 북핵으로 인한 군사적 위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민 간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답변을 지면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삶의 전 영역을 다루는 월간<월드뷰>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가능한 한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정치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며 자칫하면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월간지에는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적 시각이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글을 쓰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보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자 기독교세계관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이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면 각자의 소신대로 세상 안에서 성경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을 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회 참여일 뿐,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에 대한 어떠한 글도 신지 않았던 것과 반대 입장을 가진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글을 실자는 권유를 수용했음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 선택의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저 역시 검인정 교과서를 학부모나 교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국정체제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인정체제 아래에서도 역사교과서 선택은 특정 교사나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에게 교과서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교학사에서서는 역사 교과서를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가 보수적 성향을 띄며 친일과 독재자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집단 반대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 5,560여 개 중고등학교 중 단 3학교뿐이었습니다. 교학사는 가장 많은 교과서 종류를 발행하는 출판사인데 이 사건으로 이윤이 548억(2012년)원에서 312억(2014년)으로 급감했고, 시장점유율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역사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들어 검인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검인정 체제가 수락된 직후인 2004년부터 「한국 근·현대사」의 서술이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로 역대 정부의 공과 실에 대한 편파적 서술과 북한과 관련된 역사 서술이 편향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건국이라고 명시하고 대한민국은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으로 묘사하는 등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

육부는 2008년 금성출판사「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38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으나 집필진의 불복 소송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등 주요 용어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실은 교과서 등에 교과부가 41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집필진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반복했습니다.

요약하면 역사 교과서의 경우 국정에서 검인정체제로 전환한 10여 년 내내 논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관점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해 조직적으로 항의하거나 협박하는 등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외압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다시 국정체제로 돌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검인정 체제 아래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전체주의적 외압이 존재했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 역시도 국정화라는 전체주의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며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제가 국정화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이유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바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은 국정화 역사교과서는 친정부적인 역사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집필과정을 지켜본 저는 정부가 노력하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교수 1-2명과 교사 7-8명이 집필을 하는 반면에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31명이 참여했으며, 집필진 중에 학습탐구 등을 맡은 7명의 현직 교사를 제외한 24명은 교수이거나 역사관련 연구소의 연구위원들로 각 전공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집필하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했습니다.

집필진들은 양심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면에서는 큰 비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전체주의적 방법이라는 논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검인정 체제 12년 동안 있었던 각종 외압을 볼 때, 정부만 전체주의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국정역사교과서를 검인정처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처음에는 이를 선택하려는 학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사들의 선택과정에서 5,564개 학교에서 단 한 학교도 선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봐도 정부만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편에 다가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동참했습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평생 하면서 늘 받았던 비판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원론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뿐 현실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의 방법으로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학술지 <신앙과 학문>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했으며,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한 적도 없습니다. 월간<월드뷰> 또한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고집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필진에 참여한 것 역시 개인의 사회참여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용 노동부장재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